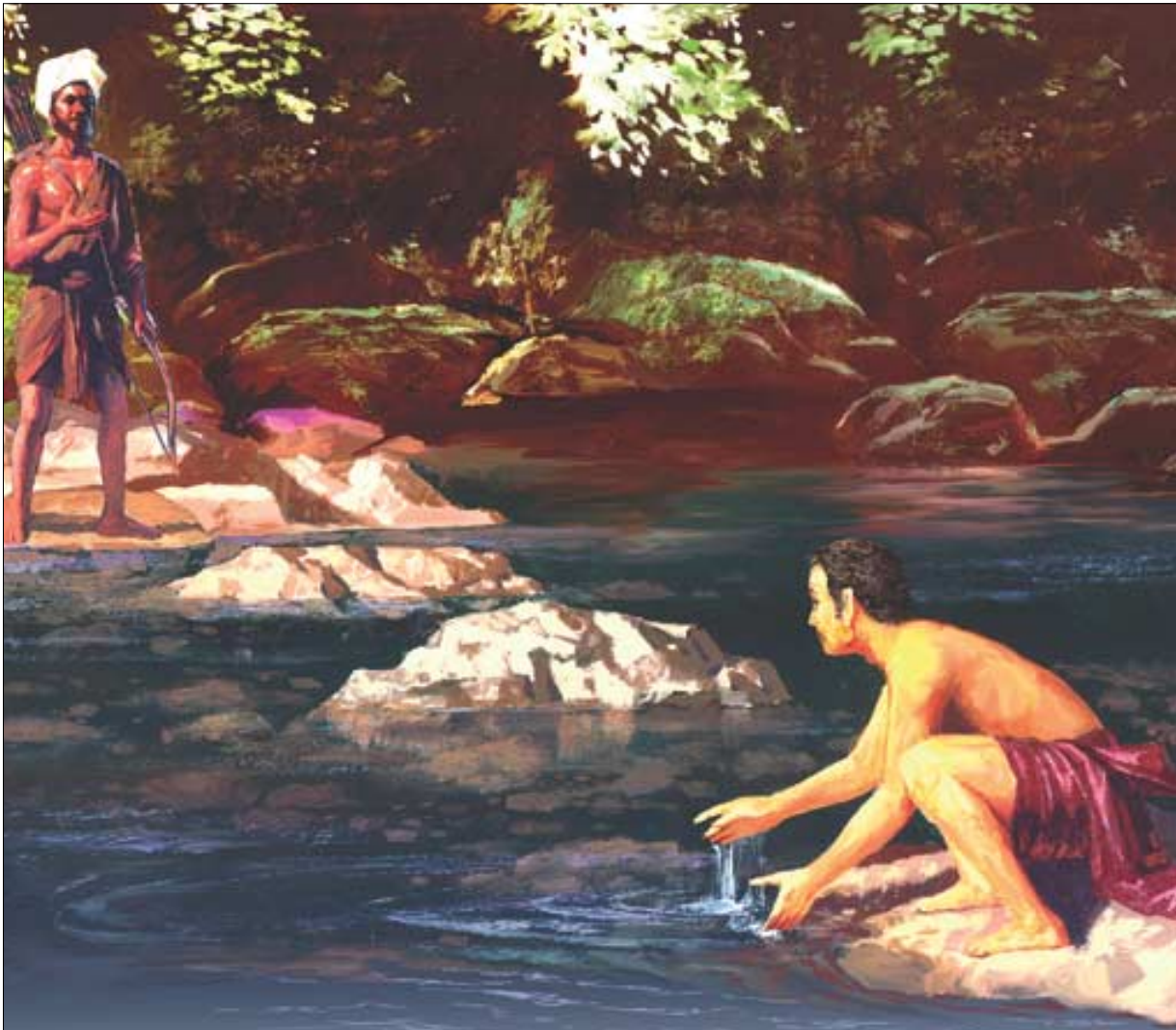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 10화 고행



시 다르타는 숲속의 동물들처럼 냇가로 가서 시원한 물로 목을 적었다. 궁중에서 마셨던 그 향기 높은 차(茶)들 보다는 더 맛이 좋았다. “나는 어지하여 이처럼 단순한 진리조차 모르고 있었는가.” 시다르타가 상념에 빠져 있다 물속을 보니 그곳엔 언제부터인지 수행자 복장의 한사람이 시다르타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냥꾼이요. 이렇게 깊은 숲속엔 사냥꾼 말고는 별로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런 곳에서 무일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제 처음 출가하여 이제 막 그 첫밤을 지낸 몸이 라요. 참, 그대는 활과 화살을 지닌 사냥꾼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카사를 몸에 걸치고 있습니까?”

“이 카사는 본래 죽은 송장에 입혔던 천한 옷입니다. 이런 카사는 주로 출가 도인들이 입고 있어서 이 옷을 입고 사슴 떼에 가까이 다가갈도 사슴들이 놀라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없어서 그들을 속여 사냥하기에 알맞은 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비단 옷과 바쿠고자 하니 내 가까이 그 청에 응하리다.”



사 냇공과 옷을 바꿔 입은 시다르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다르타의 모습 속에 일국의 태자였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다시 7일 동안 그 숲을 떠나지 않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몸에 피곤만 쌓여갈뿐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었다.

시다르타는 여드레 만에 숲을 떠나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다. 그러나 결모습과는 달리 그의 머릿속엔 의지의 강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다. 스승을 찾겠다고 마음을 굳힌 시다르타는 갠지스강 유역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쿠시나가라, 파바, 베사리, 라자가하라 등등. 그러나 스승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날 시다르타는 우연히 많은 고행자(苦行者)들이 모여 있는 한 숲속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은 밧지족의 수도 미타라 성에서 가까운 아누야 숲이었다.

그들은 아리안족의 브라만(Brahman)들이었는데 제 각각 스스로의 방법에 의하여 리그베다(Rig veda) 성전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 아트만(Atman, 自我)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문들이었다.

“이곳이 아누야 숲이 틀림없다면 바르가바 선인이 고행을 하고 계신 곳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르가바 선인의 제자들 아닌가.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행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일 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시다르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때 바르가바 선인을 찾아가 시다르타는 선인과 다 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후생의 안락을 고행으로 찾는다면 천상의 즐거움이 모두 끝나면 다시 인간세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하늘에 태어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대는 고행을 두려워하고 있군. 고행은 괴롭고 어렵지만 수행을 쌓아가노라면 참아낼 수 있게 되요.”

시다르타의 질문에 말이 막힌 선인은 영뚱하게 시다르타를 공격해 온 것이다.

“선인이여, 이미 출가한 몸이 그까지 고행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몸이 부서진 들 못내겠습니까? 그러나 보상을 바라고 제 몸을 괴롭힌다면 그 괴로움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승의 말씀처럼 제 몸을 확대한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그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고행을 권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다르타의 날카로운 논리와 질문에 바르가바 선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과연 그대의 말이 틀리지는 않소. 나도 오랫동안 그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 왔었소. 그러나 내 자신이 고행을 두려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 점이 더 두려웠던 것이요.”

“저 역시 제 말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찾는 것은 고행의 대가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는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바가 나보다 더 깊으니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기는커녕 가르침을 받아야 될 형편이요. 지금 훌륭한 스승을 찾는다니 내가 한 분을 추천하리다. 코살라(Kosala) 국내에 있는 카라마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시오. 그곳에 아라라카라마(Alarakalama) 선인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 분이시면 그대의 스승으로 적당할 것이라 생각되오.”

“스승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스승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오리다.”

다음날 아침, 시다르타는 아누야 숲을 떠나 갠지스강을 건너 북쪽으로 칼라마(Kalama) 마을을 찾아가었다

